

Meritz 통신서비스 Weekly



통신/미디어
Analyst 정지수
02. 6454-4863
jisoo.jeong@meritz.co.kr

2022.9.5

1 주가 현황

| | 수익률(%) | | | | PER(x) | | PBR(x) | | 배당수익률(%) | |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|
| | 1W | 1M | 3M | 6M | 2022E | 2023E | 2022E | 2023E | 2022E | 2023E | |
| KOSPI | -2.9 | -3.3 | -9.8 | -11.2 | 10.2 | 9.5 | 0.9 | 0.9 | 2.2 | 2.3 | <p>SK텔레콤 KT LG유플러스</p> <p>SKT 46.7% (-0.5%p WoW, -1.5%p MoM) KT 45.6% (-0.1%p WoW, +0.0%p MoM) LGU+ 37.3% (-0.3%p WoW, -0.5%p MoM) 통신 3사 외국인 순매수 기록</p> |
| 통신업종 | -1.5 | -3.7 | -7.9 | -2.5 | 8.7 | 7.7 | 0.7 | 0.7 | 6.0 | 6.5 | |
| SK텔레콤 | 2.5 | -1.1 | -7.1 | -6.7 | 11.3 | 9.5 | 1.0 | 0.9 | 6.5 | 6.9 | |
| KT | -3.7 | -2.5 | -2.9 | 12.8 | 7.5 | 6.9 | 0.6 | 0.6 | 5.8 | 6.3 | |
| LG유플러스 | -5.8 | -9.2 | -17.2 | -14.7 | 7.1 | 6.2 | 0.6 | 0.6 | 5.7 | 6.2 | |
| AT&T | -3.9 | -5.9 | -17.8 | -4.6 | 6.8 | 7.0 | 0.9 | 0.9 | 7.0 | 6.7 | |
| Verizon | -4.5 | -7.0 | -18.7 | -25.1 | 8.0 | 7.9 | 1.9 | 1.7 | 6.2 | 6.4 | |
| T-Mobile | -0.7 | -1.3 | 3.9 | 15.2 | 62.3 | 21.8 | 2.4 | 2.4 | 0.0 | 0.0 | |
| NTT | 0.1 | 0.6 | -3.5 | 10.0 | 11.9 | 10.9 | 1.7 | 1.5 | 3.1 | 3.3 | |
| KDDI | 0.1 | 3.2 | -4.7 | 12.0 | 14.4 | 13.5 | 1.9 | 1.8 | 2.9 | 3.2 | |
| Softbank | -3.7 | -2.6 | 1.4 | 10.7 | 17.9 | 23.9 | 0.8 | 0.9 | 0.8 | 0.8 | |
| China Mobile | -1.4 | 2.9 | 2.5 | -0.4 | 7.6 | 7.1 | 0.8 | 0.7 | 8.4 | 9.7 | |
| China Unicom | -6.2 | -2.1 | -0.8 | -12.0 | 5.9 | 5.3 | 0.3 | 0.3 | 8.3 | 9.8 | |
| China Telecom | -7.3 | -1.9 | -4.3 | -12.5 | 7.5 | 6.8 | 0.5 | 0.5 | 8.7 | 10.3 | |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2 업종 코멘트

전주 동향

8월 다섯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+1.4%p 수익률 기록하며 Outperform
SKT, KT, LGU+, 스마트폰 eSIM 이용한 서비스 가입 가능. 듀얼심 서비스 출시 등 가입 방식 다양화
통신 3사,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공개하며 빅데이터 기반 기술 경쟁 가속화
국내 기관은 SKT, KT, LGU+ 순매도. 외국인은 SKT, KT, LGU+ 순매도

금주 전망

금주는 특별한 이벤트 부재
미국 연방통신위원회(FCC),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 위해 10년간 1조원 이상 지원 계획
스카이TV-미디어지니 합병안 결의. KT그룹 내 미디어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과 성장 기대
북미 중심 수출 물량 증가 본격화, 5G 통신장비 업체들은 3Q22부터 실적 개선 기대

★ 통신업종 캘린더

| SUN | MON | TUE | WED | THU | FRI | SAT |
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28 | 29 | 30 | 31 | 1 SK텔레콤 CEO 간담회 | 2 | 3 |
| 4 | 5 | 6 | 7 | 8 | 9 | 10 |

3 주간 뉴스

▶ 오늘부터 eSIM서비스... 폰 하나로 전화번호 2개 (전자신문)

- 1일 스마트폰 eSIM(에시엠) 출시, 1개 스마트폰에서 2개 번호 사용 가능
- KT는 듀얼심 상품 출시, LGU+ 데이터 제공량에 차별화 둔 요금제 과기부에 신고 예정
- 과기정통부는 듀얼심으로 인한 번호 수요 증가에 대비해 번호 사용을 추이를 지속 관리할 방침
⇒ 이용자 맞춤형으로 요금상품을 조합할 수 있어 휴대전화 이용방식이 다양해질 것
⇒ 앞으로 이용자는 유심과 eSIM 중 원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개통, 듀얼심 서비스도 가능

▶ 美정부,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1조원 이상 분다 (ZDNet Korea)

- 미국 연방통신위원회(FCC), 국토 전역의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 위해 1조원 이상 기금 활용
- 6개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교외 지역 디지털 기회 펀드 7.9억 달러 지원
-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이 더 많은 가정에 연결될 것
⇒ 19개 주 35만 가구와 기업에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 계획
⇒ 대규모의 재원은 향후 10년 간 지원. 기금 수혜 상위 3개 지역은 일리노이주, 애리조나주, 아이오와주

▶ 인도 5G 주파수 경매 릴라이언스 지오 vs 에어텔로 압축... (글로벌이코노믹)

- 인도의 통신기업인 바르티 에어텔과 릴라이언스 지오, 현재 5G 사업에서 치열하게 경쟁
- 릴라이언스 지오는 구글과 연계해 더 나은 5G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혀
- 바르티 에어텔은 전 세계 통신사 90% 이상이 채택하고 있는 5G 출시 버전인 NSA(Non-Standalone) 채택
⇒ 삼성전자는 5G 서비스 주요 장비 공급기업 중 하나, 지오와 에어텔의 통신장비 공급사
⇒ 삼성전자로서는 지오와 에어텔 두 기업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어 긍정적

▶ 스카이TV·미디어지니 합병 및 올렸다...KT 미디어사업 재편 점화 (디지털데일리)

- 스카이TV-미디어지니 합병. KT그룹의 미디어사업 재편에 속도 붙을 전망
- KT스카이라이프가 62.7%, KT스튜디오지니가 37.3%씩 지분 확보
- 합병 이후에는 양사가 운영하던 채널들의 매각 또는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
⇒ 합병 기일은 11월 1일, 3년 후 ENA 브랜드 가치를 1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
⇒ AI·IT를 활용한 후반 제작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할 것

▶ 삼성전자, 국내 공공·민간 분야에 '이음5G 장비' 공급 확대 (ZDNet Korea)

- 삼성전자, 공공·민간에 '이음5G(5G 특화망) 솔루션' 제공 확대
- 공공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, 한국산업단지공단,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
- 민간 분야에서는 이대목동병원, 삼성서울병원과 협력해 이음5G 플랫폼 기반 융합서비스 창출
⇒ 에너지·안전·수자원관리·의료·의료교육 다섯 개 분야에서 공공·민간 기관과 협력
⇒ 각 수요기관에 컨소시엄 통해 '이음5G 전용 솔루션'인 컴팩트 코어, 라디오지국 등 제공 예정

▶ 통신3사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...공공·민간 부문으로 뻗는다 (파이낸셜뉴스)

- 통신3사, 각자 축적한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공개. 공공·민간·소비자 부문 등에 빅데이터 활용
- KT는 '실시간 인구 데이터'. SKT는 '비오비전 퍼즐', LGU+는 '데이터플러스' 공개
- 각각 인구 수 추정, 거주·이동·체류에 관한 통계 데이터, 소비자 분석 등 다양한 솔루션 제공
⇒ KT는 빅데이터 기반 정보를 서울시에 제공, 서울시는 이를 공공 부문 데이터와 융합시킬 계획
⇒ LGU+, 향후 고객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빅데이터와 결합해 활용 경로와 신뢰도를 높일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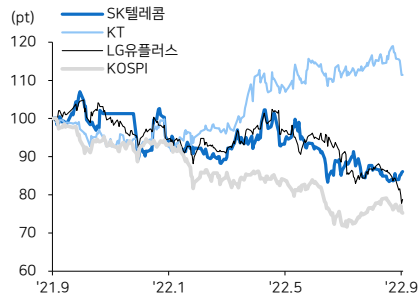
4 주요 지표

| (십억달러) | 종가 (통화) | 시가 총액 | 매출액 | | 영업이익 | | 당기순이익 | | EBITDA | | EV/EBITDA (배) | | ROE (%)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|
| | | | 2022E | 2023E | 2022E | 2023E | 2022E | 2023E | 2022E | 2023E | 2022E | 2023E | 2022E | 2023E | |
| 한국 | SK텔레콤 | 52,600 | 8.4 | 12.9 | 13.2 | 1.2 | 1.3 | 0.8 | 0.9 | 4.1 | 4.1 | 3.9 | 3.8 | 8.6 | 9.7 |
| | KT | 36,650 | 7.0 | 19.1 | 19.8 | 1.4 | 1.4 | 0.9 | 1.0 | 4.1 | 4.2 | 3.3 | 3.2 | 8.2 | 8.4 |
| | LG유플러스 | 11,350 | 3.6 | 10.5 | 10.9 | 0.8 | 0.8 | 0.5 | 0.6 | 2.6 | 2.7 | 3.2 | 3.0 | 8.8 | 9.6 |
| 미국 | AT&T | 17.2 | 122.5 | 126.9 | 122.3 | 22.8 | 23.9 | 18.3 | 18.1 | 42.1 | 42.7 | 6.5 | 6.4 | 12.7 | 13.3 |
| | Verizon | 41.3 | 173.4 | 136.4 | 138.3 | 30.7 | 31.8 | 21.1 | 22.0 | 47.9 | 49.1 | 6.7 | 6.6 | 24.6 | 22.6 |
| | T-Mobile | 142.0 | 178.0 | 81.0 | 83.7 | 7.5 | 14.0 | 3.4 | 8.2 | 27.2 | 29.5 | 9.3 | 8.6 | 4.9 | 12.2 |
| 일본 | NTT | 3,770 | 97.4 | 93.4 | 90.6 | 13.6 | 13.3 | 8.7 | 8.8 | 25.2 | 24.6 | 6.8 | 6.5 | 14.6 | 14.3 |
| | KDDI | 4,280 | 70.3 | 41.6 | 39.9 | 8.1 | 7.9 | 5.1 | 5.0 | 13.9 | 13.1 | 6.2 | 6.2 | 13.8 | 13.6 |
| | Softbank | 5,493 | 67.5 | 47.3 | 46.6 | -1.4 | -2.9 | 4.4 | 4.0 | 4.4 | 8.2 | 50.3 | 25.2 | 4.7 | 4.2 |
| 중국 | China Mobile | 51.9 | 143.5 | 134.7 | 143.7 | 19.1 | 20.6 | 18.2 | 19.6 | 48.3 | 50.8 | 1.7 | 1.6 | 10.1 | 10.4 |
| | China Unicom | 3.7 | 14.2 | 50.9 | 53.8 | 1.9 | 2.2 | 2.4 | 2.7 | 14.5 | 15.1 | 0.6 | 0.6 | 4.9 | 5.3 |
| | China Telecom | 2.7 | 47.3 | 70.2 | 75.7 | 5.1 | 5.7 | 4.2 | 4.7 | 19.3 | 20.4 | 2.4 | 2.2 | 6.6 | 7.0 |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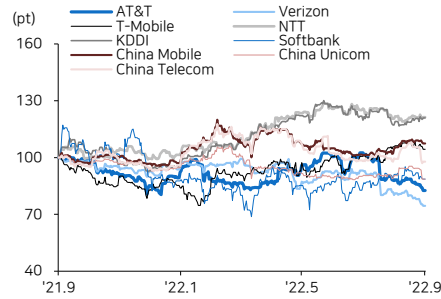
5 주요 차트

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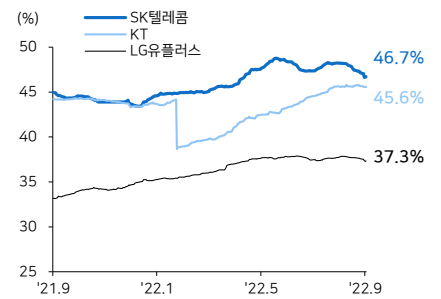
자료: WiseFn

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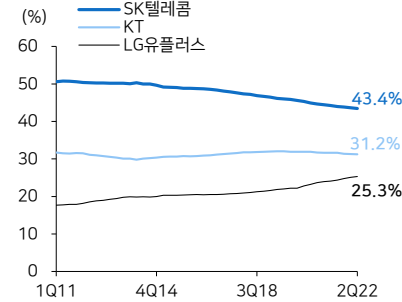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

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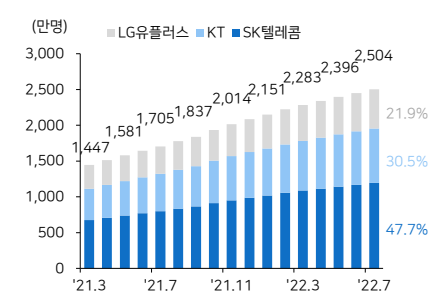
자료: WiseFn

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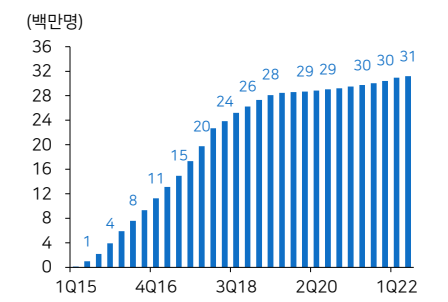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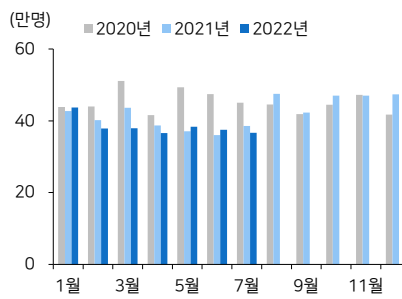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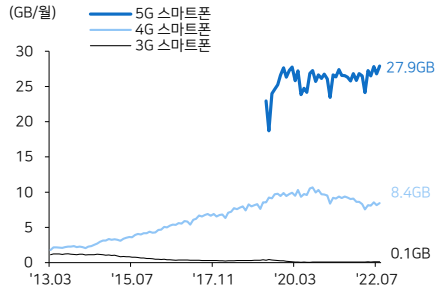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번호이동시장(MNP)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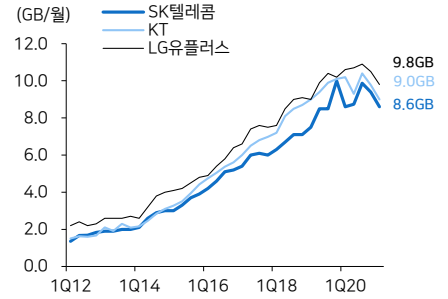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

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



자료: 각 사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